

CHUNGHYUN

1956년 인천 출생

198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990년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

파리에서 귀국한 뒤 그의 작업은 석고에서 출발합니다. 흙으로 만든 덩어리를 각목이나 삼과 같은 기구로 내려쳐 기이한 볼륨과 날카로운 단면을 만들어 이를 주물로 떠내었습니다. 조각 본래의 양과 감에 충실한 것일 뿐 아니라 소재가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조각의 문맥에 밀착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에서 집중적으로 선보인 침묵(枕) 작품은 그의 조각하는 태도 또는 조각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 구현한 인간상은 인간과 산업사회, 인간과 근대문명의 치열한 대결과 화해의 기념비적 형상으로 인상 지워집니다. 그는 침묵을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재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로 놓아둡니다. 재료와의 만남이 단순한 사용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순치되는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후에 작업에 임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발견이 곧 창작이 될 수 있는 내력을 말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현은 조각에 못지 않게 많은 드로잉을 남기고 있습니다. 드로잉은 그에게 있어 조각과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드로잉의 연장선상에서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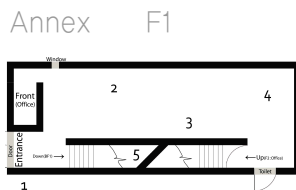
정현이 선택하고 있는 재료는 대부분 버려진, 용도가 폐기된 질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버려진 질료상 상당 부분 산업 쓰레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침묵이 그렇고 아스콘이 그렇고 막돌이 그렇고 철근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용도가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질료들이 인간의 인고의 역사로 다가와 감동을 주었고 작가 정현에 의해 재발견되고 그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양과적인 것과 선적인 것의 부단한 반복 현상처럼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의 반복현상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스콘에 의한 수평적인 형상에 비해 그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버려진 철근에 의한 수직적인 형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의지의 상승을 시사합니다. 이번 학교재 신관에 전시될 작품을 포함한 최근작은 폐기된 철근에 의한 수직적 의지를 표상한 것입니다. 조각이기도 하고 조각이 아니기도 한 경계 선상에 가까스로 존재하는 것, 형태이기도 하고 형태가 아니기도 한 간극 속에 가까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발산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온통 공간을 거대한 탄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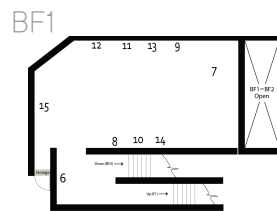
"살아 있음 그 자체, 날 것, 예측을 불허하는 이미지"가 그의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생한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나타내려는 의도나 다름지 않고 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의 대담한 제시는 지금까지 조각이 시도해온 변형시키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체의 방법적 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일탈의 조각이 갖는 의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광수 전시 서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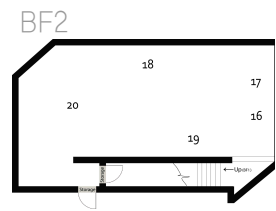
정현 신관 F1, B1, B2



1. Untitled, 42x42x666cm, 2008, Steel
2. Untitled, 39x28x189cm, 2008, Steel
3. Untitled, 130x67x104cm, 2008, Steel
4. Untitled, 114x73x245cm, 2008, Steel
5. Untitled, 31x30x141cm, 2008, Steel
- F. Untitled, 39x54cm, 2008, Steel



6. Untitled, 31x30x41cm, 2006-2008, Steel
7. Untitled, 98x82x161cm, 2008, Steel
8. Untitled, 84x175cm, 2006-08, Rust on Iron plate
9.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0.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1.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2.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3.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4.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5. Untitled, 84x175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6. Untitled, 38.5x38.5x655cm, 2008, Steel
17. Untitled, 37.5x37.5x640cm, 2008, Steel
18. Untitled, 97x83x238cm, 2008, Steel
19. Untitled, 109x50x190cm, 2008, Steel
20. Untitled, 87x95x237cm, 2008, Steel

CHUNGHYUN

1956 Born in Incheon, Korea
 1982 B.F.A. Department of Plastic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86 M.F.A. Department of Plastic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0 Diplome de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Paris, France
 Currently, Professor, College of Ar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He worked with plaster when he returned to Korea from Paris. At that time, he made voluminous shapes and sharp edges using clods of earth and tools such as wooden sticks and shovels, and then made plaster casts with them. The results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conventional sculpture in that the shapes were voluminous and representing human figures, which is a part of basic language of sculpture. We could clearly find Chung's attitude for sculpture and his unique way of understanding the genre of sculpture in these railroad tie figures, the most important works he showed in the invitation exhibition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2006.

In most cases, Chung uses abandoned or disused materials in his works. In modern society, those materials are mostly industrial wastes such as the railroad tie, asphalt concrete, pebbles, and iron reinforcing bars. Each of those materials once had a use but was abandoned because it lost it and became no longer useful. Chung finds those deserted materials and gives each of them a new life. In this respect, they can be seen as monuments representing the fierce confront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industrial society; humans vs. modern civilization.

In addition to the repetitive rotation of the linear and the voluminous, there is the reiteration of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in Chung Hyun's works. The vertical forms made with iron reinforcing bars he shows in his recent works contrasts to the horizontal forms in his earlier works made in ascon. They barely maintain their existences as forms and non-forms. The great tension given off in his works attracts the entire space with an inescapable magnetic force.

Chung Hyun is a sculptor who thinks that drawing is an important part of sculpture. He does not think of it as a different genre and has done as many drawings as sculptures. He makes sculptures out of drawings, and drawings out of sculptures. Chung's latest drawings show the existence of sharp lines. Here the material itself represents the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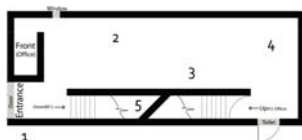
I think that "the life itself, the untouched and raw, and the unexpected image" are the cardinal principles controlling Chung's entire world of art. I said "the untouched and raw" since he does try to show the living history in materials without any corrections or elaborations. Chung's way of exposing the raw is boldly against the method and logic of traditional sculpture which transforms, dismantles, and reconstructs the base materials. In short, his works contain the language of deviation

Oh Gwang-soo(Art Critic)

(The Esthetics of Restitution and Deviation, -On Chung Hyun's Work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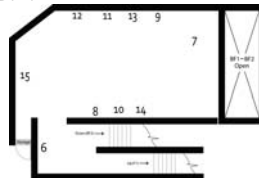
정현
 신관
 F1, B1, B2

Annex - F1



1. Untitled, 42x42x666cm, 2008, Steel
2. Untitled, 39x28x189cm, 2008, Steel
3. Untitled, 130x67x104cm, 2008, Steel
4. Untitled, 114x73x245cm, 2008, Steel
5. Untitled, 31x30x141cm, 2008, Steel
- F. Untitled, 39x54cm, 2008, Steel

BF1



6. Untitled, 31x30x41cm, 2006-2008, Steel
7. Untitled, 98x82x161cm, 2008, Steel
8. Untitled, 84x175cm, 2006-08, Rust on Iron plate
9.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0.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1.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2.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3.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4. Untitled, 116x116cm, 2006-08, Rust on Iron plate
15. Untitled, 84x175cm, 2006-08, Rust on Iron plate

BF2



16. Untitled, 38.5x38.5x655cm, 2008, Steel
17. Untitled, 37.5x37.5x640cm, 2008, Steel
18. Untitled, 97x83x238cm, 2008, Steel
19. Untitled, 109x50x190cm, 2008, Steel
20. Untitled, 87x95x237cm, 2008, Steel